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 소식

◆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성모님의 삶과 신앙을 우리의 삶 안에 본받는 복된 한달 되시기 바랍니다.

◆ 견진 교리 및 견진 성사 안내

- 견진 교리: 4월 18일부터 매주 토요일 3-5시
- 견진 성사: 5월 24일 주일 미사 (주교님 집전)

◆ 견진 성사 예절 연습

- 일시: 5월 23일(토) 2시 40분
- 장소: Holy Family Church
- 대상: 견진 대상자, 대부모, 전례위원, 복사

◆ 성모성월 야외미사 안내

- 일시: 5월 17일(일) 오전 10시
- 장소: Blendon Woods Metropark (Sycamore Shelter)
4265 E Dublin Granville Rd.
Westerville, OH 43081

◆ 구역별 가정 면담

- 일시: 주일 미사 후
- 장소: Parish Center 내 신부님 집무실
- 면담순서: 황석두 구역, 이호영 구역
- 지침물: 교적, 교무금 약정서, 신앙현황서

◆ 이호영 구역모임

- 일시: 5월 16일(토) 저녁 7시
- 장소: 김명호 형제님댁 (614-792-9391)
7518 Heatherwood Ln.
Dublin, OH 43017

◆ 친교 준비 봉사자

- 5월 10일: 김성애

◆ 5월 친교 후 정리 봉사: 김재준 구역

◆ 2009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5,700이며, 지난해까지 모금액은 \$700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성모회에서 롯데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판매금액의 10%가 성모회 기금으로 모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496.00
교 무 금	\$1,725.00
감 사 헌 금	\$500.00
BAA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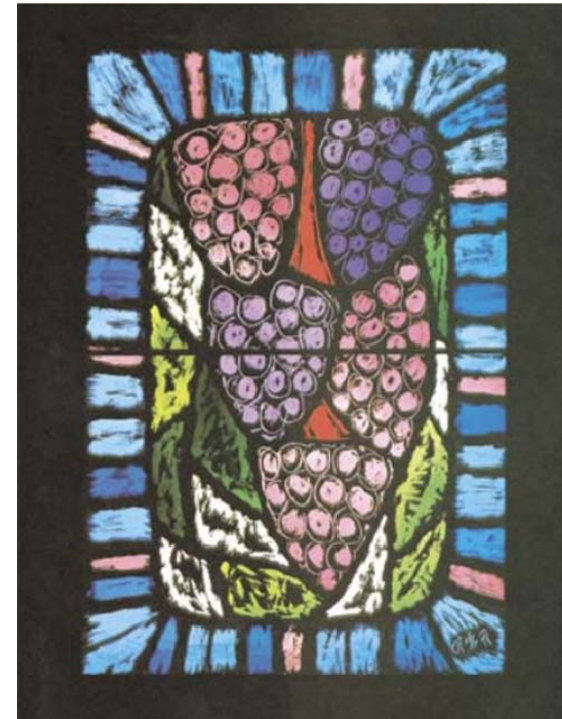
- 교 무 금: 이인표 이석찬 이진학 김태형 이호근 최규선 윤경수 권혁제 최준표 문승태 최창배 여정희 임인홍 김명호 김도균 박귀영 윤형석
- 감사헌금: 선종현 김도균 박귀영 최예리
- BAA: 양희진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부활 제5주일 May 10, 2009



< 포도 >

이남규(1931-1993), 유리화, 서초동 성당, 서울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제 1 독서 사도행전 9,26-31

“바르나바는 어떻게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뵈게 되었는지 사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화답송

주님, 큰모임에서 드리는 저의 찬양도 당신에게 서오나이다.

제 2 독서 요한1서 3,18-24

“믿고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 알렐루야

복음 요한 15,1-8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을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 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5,423단 33명
이호영	단 명	19,319단 127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단 명	2/22/04 - 5/3/09 (272주)

총누계: 213,442단 12,761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5월10일	5월17일
해설자	김오경	고상식
독서/봉헌	김제준 구역	김효임 구역
보편지향 기도	평화의 모후	상지의 옥좌

오늘의 성가

- ♪ 입당: 131 ♪ 봉헌: 219
- ♪ 성체: 171 172 ♪ 파견: 136

나는 참포도나무이다

구요비 음 신부 | 프라도회 한국 책임

우리나라에 ‘포도나무’가 들어오고 포도 재배가 자리 잡는 과정에 선교사 신부님들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지금의 안성(安城) 포도가 불란서 신부에 의해 번식되었고, 1910년대에 지금의 대학로가 자리 잡은 동송동 일대는 넓은 포도원 농장이었다. 선교사들은 포도 농사를 통해 가난한 교회의 살림을 꾸려갔던 것이다. 이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이분들의 백성에 대한 목자적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

오늘 복음에서 농부인 하느님 아버지와 참포도나무인 예수님 사이에(1절), 그리고 포도나무인 주님과 그 가지인 우리 인간 사이에(5절) 이 사랑이 깊게 배어 있다.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구세사 안에서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인간은 광야에서 마구 자라온 야생 포도나무와 같다(이사 5,1-7). 하느님은 이 포도나무를 지극 정성으로 키우고 돌보아 주시지만 그 결과는 늘 실망과 후회뿐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걸어온 기대와 희망을 성취하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 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1절).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운명을 담고 있다. 포도 농사꾼은 겨울에 죽은 가지들을 잘라내고, 이때에 좋은 나뭇가지도 전지(剪枝)하는데, 이는 수액을 모으고 많은 포도송이를 소출해 내기 위해서이다. 이런 가지치기가 없을 때 포도나무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자랄 뿐이다. 농부들은 가지치기를 할 때 포도나무가 아파서 운다고들 말한다. 포도의 수액은 나무의 상처가 아물기 전까지 가장 많이 흘러내린다. 어디 그뿐이라?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맛깔진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부서지고 으깨어져야 한다. 예수님 자신이 이런 운명을 사셨다. 십자가 나무 위에서 피흘리는 참혹한 고통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한 포도주가 되셨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마르 14,25)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 자신인 참포도나무에서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서 마실 새 포도주가 빛어진다.

하느님과 인간이 이루는 일치의 기쁨과 행복을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설명한다. “향기로운 포도주를 마시는 하느님과의 친교가 영혼 전체 안에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것이며, 영혼이 하느님 안에 변화되어 사랑하는 님(하느님)이 나를 당신의 사랑 안에 두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마시게 하신다”(영적찬가 26).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하고 여덟 번이나 반복해서 호소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4절)’는 말씀은 바로 기도 생활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 기도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신앙 행위가 되어야겠다. 이는 주님이 내 안에 머무르시도록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는 데서부터 시작된다(7절).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의 정신처령,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음미하고, 기억하고, 갈망하고, 관상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